



한국코닥, 한국필름과 MOU 체결 “전문인력 확보한 한국필름 믿는다!”

한국코닥(대표이사 히로시 후지와라)와 (주)한국필름(대표이사 차의송)은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지하 1층 뉴욕&이스타블룸에서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번 협약식에는 (주)한국필름에서는 차의송 대표이사, 공석수 부사장, 방주현 상무이사, 강성빈 이사, 한국코닥(주)에서는 히로시 후지와라 대표이사, 에반드로 메튜치 코닥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 임채영 이사, 최태성 부장, 최준호 부장, 박승태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사 소개, 양사 직원 소개, 조인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주)한국필름은 플레

이트 세트, 디지털 판재 및 소모품, 워크플로 솔루션, 디지털 인쇄장비 등 코닥의 다양한 솔루션을 국내 인쇄업계에 공급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코닥 “코닥 솔루션 더 활발하게 소개되길 기대”

한국코닥(주) 히로시 후지와라 대표이사는 “한국 필름은 국내 인쇄업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

하며 4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회사다. 특히 변화하는 인쇄업계를 발빠르게 반영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화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늘 도전을 추구하는 한국필름을 통해 코닥의 솔루션을 더 활발하게 소개하고 시장에 공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필름 “코닥과 함께 국내 인쇄시장 이끌겠다”

(주)한국필름 차의송 대표이사는 “한국코닥과 코닥 솔루션 국내 판매에 대한 전략적 제휴 협정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코닥의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은 국내 인쇄시장에 꼭 필요하다. 코닥의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고객과 하나’라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인쇄산업의 새로운 내일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코닥과 함께 국내 인쇄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